



2016 김과장, 전시장 가는 날

제22회 마니프서울국제아트페어(10.2~10.13)에 군포예술인연합회의 미술지부장을 맡고 있는 이상훈 작가가 초대되어 참여하게 된 것을 계기로 이번 전시회의 이모저모를 알아보고 아울러 '아트페어'가 무엇이며 일반인들이 어떻게 미술품을 소장할 수 있을까 알아보려 한다.

제22회 마니프서울국제아트페어(10.2~10.13)에 한국미술협회 군포지부장 이상훈 작가 초대

이번 전시는 국민소득 2만불시대에 과장 승진으로 올라간 생활수준과 문화의 품격을 리모델링 해보자는 취지로 회원들을 겨냥하여 '김과장, 전시장 가는 날' 이라는 전시타이틀을 걸었다. 2016년 10월 2일부터 10월 21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전관에서 열렸는데 일반인 8000원 초중고생 7000원인 입장료를 과장 명함을 가지고 가면 동반직 계가족까지 무료입장이 가능했다. 마니프조직위원회가 주최로 22년 전통의 국내 첫 군집 개인전 국제아트페어인 '마니프서울국제아트페어'를 비롯해, 신진유망작가 중심의 '아트서울'· 국내 서양화 구상계열 전문 '한국구상대제전' 등 3개의 통합 아트페어였다.

특히 이 전시는 백화점에서 물건 사듯 그림을 살 수 있는 '가격 정찰제' 아트페어로 작품 옆에 그림 값이 적혀있었다. 또 작품부스를 작가들이 지키고 있어 작품세계를 함께 나눌 수도 있었다.

이번 마니프아트페어의 매력 중 하나는 작가의 역량을 살펴볼 수 있는 개인전 형식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진행형식은 아트페어지만, 각 부스에는 10호 이내 소품부터 100호 이상의 대작까지 함께 설치되어



MANIF

2016 마니프서울국제아트페어



Lee Sang Hoon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2층/ Booth No. B34/ 2016/ 10/ 8(SAT) - 10/ 13(THU)

있어 작가의 다양한 작품세계와 깊이를 가늠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한 관람객은 개인 부스에 상주하고 있는 작가에게 작품의 제작과정이나 주제를 직접 들을 수 있었고 남다른 볼거리와 흥미를 선사했다. 이 때문에 그림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취미 화가들도 평소 좋아하던 작가나 화풍을 만나기 위해 교육프로그램 차원에서 방문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김과장, 전시장 가는 날'이란 전시 타이틀에 맞춰 누구나 편하게 작품을 감상하는 가운데 저렴하게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100만원 소품 특별전"도 운영되었다. 행사기간 중 1층 로비에 전체 초대작가 작품 중 100만원 내외 소품만 한 자리에 모은 특별부스가 설치되어, '생애 첫 번째 컬렉션'을 준비하는 미술애호가 입문자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100만원으로 평소에 쉽게 접하기 힘든 원로작가의 소품부터, 중진 유망작가의 내실 있는 작품을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아트재테크 측면에서도 실속이 있는 기회였다.

전시회 분야별 참여작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제22회 마니프서울국제아트페어

▲1부 초대작가 (총 68명) / 10.2~10.7

강순희 광연주 광진 광호진 김경숙 김경아 김민정 김선정 김성희 김순영 김영빈 김영주 김은아 김지순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태균 김향숙 김현정 김효순 김훈섭 김희순 김희연 노숙희 류향미 박지혜 박태영 박희숙 손영수 신의숙 신정옥 신현예 안예나 엄태림 윤선 윤수진 윤영애 이정자 이경희 이도희 이미경 이미숙 이상훈 이성애 이은미 이은희 이재상 이종현 이항지 이흥규 이희숙 임병술 장경희 정선이 정용주 정지선 조민숙 조영자 최미령 최윤희 최은숙 최진선 최혜정 하만중 한명옥 허현숙 황혜경

▲2부 초대작가 (총 68명) / 10.8~10.13

곽세빈 김란 김리운 김선 김성석 김성은 김성희 김수정 김영채 김은지 김판목 김현주 김희조 나라 남정임 마저문 숙박명희 박민규 박은경 박재석 박정용 박태이 석종현 손소화 신미희 신상용 심지현 안미연 안소정 양종용 양지희 오현석 원경도 윤이정 윤지영 윤혜정 이경해 이다 이득선 이미연 이방원 이상덕 이솔 이영애 이영은 이은미 이현진 임수빈 임승현 임희조 장현웅 정나래 정숙향 정은경 정은진 조순영 주성성 최누리 최승열 최지선 최현식 최현정 탁소연 한유진 한철희 홍셋별 황미리.

제14회 아트서울

▲초대작가 (총 35명) / 10.8~10.13

구민희 김경연 김미숙 김민지 김보람 김보영 김소형 김준협 김지수 김지영 김효순 김희균 김희조 남정임 박지은 서은아 손소화 송동영 심주희 유명미 윤수진 이경희 이영익 이은정 이정아 임경수 임수빈 전정자 전진선 정두진 정호연 조영자 조윤국 태영호 허은오(35명) 10.8~10.13

구민희 김경연 김미숙 김민지 김보람 김보영 김소형 김준협 김지수 김지영 김효순 김희균 김희조 남정임 박지은 서은아 손소화 송동영 심주희 유명미 윤수진 이경희 이영익 이은정 이정아 임경수 임수빈 전정자 전진선 정두진 정호연 조영자 조윤국 태영호 허은오

제12회 한국구상대제전

▲초대작가 (총 94명) / 10.14~10.20

강길원 강두형 강순자 고미선 구자동 구자승 김가범 김계환 김기택 김대영 김대정 김동진 김명희 김민정 김보연 김세호 김숙 김순이 김영일 김와곤 김인화 김일해 김장혁 김정란 김종석 김종원 김종준 김주영 김태균 김한오 김훈섭 노광 노재순 류영도 문가연 민경숙 박강정 박계숙 박성희 박영동 박용인 박정 박정용 박종인 박지오 박진우 박창범 박철환 박태영 배정강 배정하 손미량 손영수 손정숙 손진희 양성모 엄윤숙 오광섭 윤석수 윤지민 이강화 이명화 이범현 이상열 이승현 이영미 이영박 이영수 이정재 이해임

이희현 장동문 장정금 장철석 전광수 전상수 전인수 정용주 정유정 정재성 정태영 정해광 조성호 조안석 진문화 최미영 최예태 태인 하만중 홍경수 홍경표 홍셋별 홍성열 황정자

이번 아트페어 전에는 80대 원로작가부터 20대 신진작가 총 235명 군집개인전으로 3,000여점의 신작들이 발표되었는데 김영석 마니프조직위원회 대표는 "최근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원로작가들이 국제무대에서 큰 활약을 선보여 인상적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적 미감이 이어지고, 그 정체성을 경쟁력으로 삼기 위해서라도 원로와 신진이 한 자리에서 어우러지는 기회가 소중한다고 여겨진다"며 "마니프아트페어는 앞으로도 국내 작가들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활성화 되는 다양한 방편들을 실천해 가겠다."고 밝혔다.



초보자가 미술품 컬렉터가 되려면 '아트페어'를 기웃거려라

경매에 가기는 아직 겁나고, 화랑에 아는 사람도 없는 일반인이라면 먼저 아트페어를 기웃거리해보면 어떨까. 아트페어는 부스를 하나씩 차리고 한 자리에 모여 한꺼번에 물건을 파는 전통 5일장과 같은 미술품 시장을 떠올리면 된다. 이곳저곳 따로 다닐 필요 없이 한 자리에서 여러 작가의 다양한 작품을 한번에 만날 수 있다. 한나절 발품을 팔면 요즘 잘 팔리는 작가는 누군지, 어떤 작품이 인기가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인기 작가부터 신인 작가까지, 비싼 작품부터 싼 작품까지 전시되어 있고 비교적 저렴한 소품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국내 아트페어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한국국제아트페어(KIAF)'다. 키아프에는 국내의 주요 화랑이 모두 참여하고 일반인을 위한 강의 등 부대행사를 많이 마련한다. 한국화랑협회는 매년 화랑미술제라는 아트페어를 한 번 더 여는데 이 역시 많은 국내 화랑이 참여하는 대규모 장터다. 9~10월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마니프'도 주요 아트페어 중 하나다. 마니프는 일반 아트페어처럼 화랑들이 주최가 되어 참여하는 게 아니라, 주최 측에서 선정한 작가들이 작가별 부스를 가지고 참여한다.

